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KEB하나은행, PB 자산관리 시스템 확대 오픈

KEB하나은행은 지난 10월 8일 영업1부 지점을 포함해 전 영업점으로 PB 자산관리 시스템을 확대 오픈했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전 영업점에 배치된 ‘행복파트너(Branch PB)’를 통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글 여경미 기자 사진 임익순 기자



KEB하나은행은 그동안 PB(Private Banker)에게만 제공하던 ‘PB 전용 자산관리 시스템’(KEB하나 Asset Management System)’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전 영업점으로 확대 오픈했다. 이로써 국내 최고의 프라이빗 बैं킹을 자부하는 KEB하나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8일, KEB하나은행 영업1부 지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KEB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박종영 전무, 행복파트너, PB 등이 참석해 힘찬 출발을 알렸다.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은 지난 9월 초 취임 이후 일류은행 도약의 일환으로 전 직

원의 PB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금융자산 3,000만원 이상 고객 및 장기 거래 고객들이 전국 영업점에서 PB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복파트너(Branch PB)’ 1,700여 명을 선발해 전 영업점에 배치했다. 또한 고객 상담의 편의를 위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하나 VIP멤버스’를 설치하는 등 현장 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PB 전용 자산관리 시스템’은 자산관리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고객의 자산 및 투자성과 분석, 상속, 부동산, 금융종합소득과세 등 개인재무 설계 및 포트폴리

오 설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기존 PB 고객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세무, 부동산, 법률, 유언신탁 등의 자문 서비스가 보다 확대됨으로써 고객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EB하나은행 PB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PB 전용 자산관리 시스템’의 확대 오픈을 통해 고객들은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PB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PB 명가(名家)’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ㄴ



KEB하나은행 통합 기념 특별 행사

2015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전야제

올해는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이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또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한 KEB하나은행이 글로벌 बैं킹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진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과 귀빈들을 모시고 2015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의 성공과 KEB하나은행의 밝은 내일을 응원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5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전야제에는 최나연, 유소연, 안시현, 김세영, 이정민, 김호주, 조운지, 이정은 등 국내 선수를 비롯해 앨리스 리, 미셸 위, 제시가 코다, 모간프리셀, 폴라크리머, 브리트니 랭, 아리아·모리아 자매, 씨유린, 포나농 등 세계 유명 선수들이 참석해 승패를

떠나 하나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외에도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응원과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LPGA를 주름잡았던 ‘골프 퀸’ 박세리, 김미현, 박지은 선수도 전야제에 참석, 행사 전 사인회를 통해 팬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5년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KEB하나은행으로 다시 태어난 소중한 해”라며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역시 아시아 최고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찬과 태인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전야제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서울페션위크 박윤수 디자이너의 패션쇼로 점

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0914 어워드 시상식에서는 줄리 잉스터가 올해의 선수상을, 파란원피스로 색시한 건강미를 발산한 앨리스 리가 베스트 드레서상을 수상했다. 전야제의 하이라이트로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가수 인순이, 아이돌 가수 EXO와 EXID의 축하공연이 마련되어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가 넘쳤다. 10월 15일에서 18일까지 인천 스카이72GC에서 열린 2015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은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로 총 78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가을 하늘에 명품 샷을 수놓았다. KEB하나은행은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선수들과 귀빈들이 보내준 성원에 힘입어 더욱 열정적인 마음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ㄴ

지난 10월 13일, 2015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앞두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화려한 전야제가 열렸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귀빈들이 자리해 그 어느 행사보다 성대하고도 뜻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

글 김봉연 기자 사진 원동현 기자

